

5. 자유-6. 성령을 받으시오.

주제: 자유-6. 성령을 받으시오.

시작 성가:

목적: 이 시간은 성령을 통하여 자유를 발견하고 세상에 불이 되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입니다.

안내:

부활절의 상징은 어린 아이의 모습 또는 알에 갓 나온 병아리, 또는 겨울에서 새로 피어난 꽃이나 새 생명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아픔을 낮게 해주는 그리스도-하느님의 생명의 주기를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동굴과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는 무덤은 하나의 사랑의 주기를 이룹니다. 이 하느님 역사의 주기는 생동하는 우주의 원리의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내면에서부터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하느님 사랑의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달, 여성과 남성, 이런 두 음양의 리듬에서 섬세하게 춤을 이루며 계속되는 하느님의 역사는 시작도 끝도, 여지도 한계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느님의 현존이 다가올 때면,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가장 깊은 존재와 접속되도록 하여 자유와 불이 지닌 친밀함을 느끼게 하여 우리가 겪는 체험을 내면에서 공명하게 됩니다. 이 체험은 우리가 지나온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일치감으로 현재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어 정신과 마음은 자유롭게 합니다. 이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불 가운데서’ (탈출 19,18)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을 지르는 사명을 느끼게 합니다. 이 기쁨은 무제한으로 늘어납니다.

‘내가 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가슴에 지닌 굶주림 즉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모든 진실함과 기쁨이 밖을 향해 빛나는 정신-영입니다. 교회현장 17항에서 인간은 자유 안에서만 자신의 진실과 사랑의 궁극적인 자세인 선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충동이나 단순한 외적 압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성령을 따르게 되면 하느님사랑에 의존하게 되고 깨달음이 뒤 따르며 성령이 지닌 강력한 에너지는 우리를 온화하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용기와 만나게 해줍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축제이며 자비로우시고 풍요로우신 하느님의 좋으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축제입니다. 축제는 축제를 위한 제물을 마련하고 기쁨의 춤을 추며 사랑과 감사가 가득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쏟아질 때 창조되며 하느님의 선하심은 모든 창조된 선함이 솟아오르는 샘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내면에서 발견하게 되는 정의, 동정, 자비, 또는 아름다움은 하느님 안에 그 무한한 원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삼라만상을 통해서 자양분이 되는 생명을 알게 하시고, 우주의 경이로움에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무책임하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고통당하고 절망적인 곤경에 빠지곤 합니다. 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다시 하느님과 온 세상과 화해하여 주님의 신비로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느님, 부활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성령의 평화로 우리를 채워 주소서!

구할 은총 (갈망)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을 구한다.

첫 과정: 바라봄-개인 성찰:

- 1.나/우리부부의 삶에서 이 탄생과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하는 부활의 춤을 묘사하라면?
- 2.나/우리부부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다시 생활하게 하여 그분의 신비에 함께 하도록 초대 받은 경험이 있다면?
- 3.나/우리부부가 요즈음 억압되어 있다면 어떤 것이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해방의 자유는 가능한가?
- 4.나/우리부부가 “당신은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내적 선물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 5.나/우리부부가 곤경에 처해 있었을 때, 나/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신비를 체험한 적이 있다면?

둘째 과정: 들음-성경 말씀:

1.요한 3,16: 부활절의 어린이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2.사도 2,1-11: 불과 바람 속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불꽃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고, 자기 지방말로 이해하였다. 모두들 놀랐다.

3.갈라 5,1.25: 금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4.요한 7,37: 8,12: 기쁨의 잔치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5.에페 1,17-23: 우리들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그분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 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셋째 과정: 알아차림(공개 나눔):

개인 성찰과 성경묵상을 통하여 새롭게 발견한 것을 나누고 공개 나눔의 질문을 이용하여 부부의 응답을 확인한다.

(공개 나눔을 위한 질문):

1. 오늘 새롭게 발견된 나/우리 부부의 모습은?
2.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이 나/우리 부부에게 바라시는(원하시는) 모습은?
3. 오늘 우리부부의 소명기도?

나눔과 듣기를 위한 기도